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1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깨어 있어라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88장 “임하소서 구세주여”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깨어 기다리는 저희 마음에 오소서.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2장 35-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불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1)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했던 준비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한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인도에서 마더 데레사는 홀로 살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찾았는데, 할머니는 그저 숨이 붙어 있을 뿐 죽어 있는 사람 같았다. 마더 데레사는 그 할머니에게 따듯

한 음식을 만들어 주고, 집안을 청소하였는데, 청소하던 중 먼지가 덕지덕지 묻었지만 참 예쁜 등잔 하나를 발견하였다. “할머니, 이렇게 예쁜 등잔에 왜 불을 켜지 않나요?” “등잔 불 켜야 할 일이 없어요.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거든요.” “만일 누군가 할머니를 매일 찾아오면 이 등잔을 밝히실 건가요?” “그럼요.” 마더 데레사는 다른 수녀들에게 그 할머니를 매일 찾아가라는 부탁을 하였다. 젊은 수녀들이 꾸준히 찾아가자 그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여 생기 넘치고 기쁘고 깨끗이 살아갔다. 2년 후 할머니가 마더 데레사를 다시 만나 전하였다. “데레사 수녀님, 나는 그날 이후, 내 등잔의 불을 하루도 꺼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매일 등잔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였다. “내가 그 할머니에게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그 할머니로 하여금 예쁘고 작은 등잔에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커다란 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은 등잔에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작은 미소를 베푸십시오. 작은 관심을 베푸십시오. 작은 칭찬을 베푸십시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함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함시다.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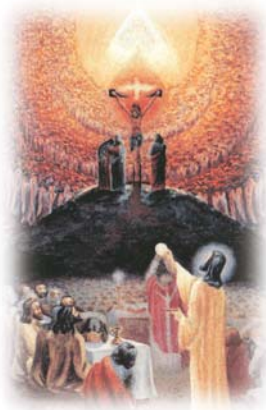
진행자 가톨릭성가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시”를 부름시다.

궁금
했어요



**성체와 성혈이 거행될 때,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간혹 오래된 신자나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성체, 성혈을 바라보며 무어라고 중얼중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자세가 옳은가요?**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이전에는 제대가 벽면을 향해 위치했습니다. 교우들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였지요. 때문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교우들의 열망이 있었고 이에 부응하여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들어 교우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자들 사이에서 감히 성체를 쳐다 볼 수 없다는 지나친 경외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잘못된 관습이 마치 올바른 자세인양 자리했습니다. 오죽하면 1907년,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성체를 바라보며 토마스 사도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라고 고백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얼중얼하시는 분은 이 옛 기도문을 습관적으로 바치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혹은 그 분을 향한 개인적 찬미를 울리기 위함이나 주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때에 맞춰 기도하면 훨씬,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전례는 ‘성체 거양’ 때의 올바른 자세로 “오직 성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현존을 경배할 것”을 권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에는 과한 흠숭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솔하게 경배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모이기에 너무나 즐거운 사람들”

-김명숙 레지나(옥포본당 3구역 아주2반 반장)-

저희는 옥포본당 3구역 아주2반 소공동체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2009년 12월에 입주를 하였고 지금의 모임을 시작한 것은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해 왔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심 끝에 두 분씩 짝을 지어 구역 내 교우 파악에 나섰고, 냉담교우를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현재의 소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희의 이런 노력에 힘을 실어주신 것은 본당 신부님이셨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친교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허철수 신부님께서는 각 구역별로 친히 순회미사(구역미사)를 하시고 냉담지는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까지 모셔서 소주까지 한잔하시면서 친교의 영역을 넓혀 주셨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배려에 힘입어 저희 소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녁에 부부동반 모임을 하면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모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외짝교우인 두 자매님이 계시는데, 남편은 세례를 받지 않으셨지만 모임에는 함께 참석하고 계시답니다. 처음에는 형제님께서 신앙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으시고 참석도 거부하셨기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지요. 대부분 인근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다들 알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에, 소공동체 모임 후 소주나 한잔하자고 초청하여 회사일과 사회적 화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답니다. 지금은 신앙과 관련된 대화까지 발전한 상태이고요. 물론 이분들을 다음 예비자 교리에 입교시켜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영세시키기 위해 반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본당 소공동체 모임이 낮에 이루어지고, 자매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희 반은 부부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보니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대화가 잘 없던 부부도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 대화가 늘어났고, 형제님들의 경우 본당 사목회 간부직을 많이 맡고 계시다 보니, 본당이 돌아가는 소식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자연스레 본당 일에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그자체가 즐겁고 그 만남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느님 안에서의 더 돈독한 친교를 통해 소공동체 구성원은 물론이고 주위 분들과도 함께 하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옥포본당 3구역 아주2반 소공동체〉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